現行襚衣에 關한 硏究(Ⅱ)

建陽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裳學科
專任講師 劉 寬 順

目 次

Ⅰ. 緖 論
Ⅱ. 襚衣의 準備
Ⅲ. 襚衣의 保管法
Ⅳ. 襚衣의 치수와 形態
1. 男子의 襚衣
2. 女子의 襚衣
3. 男·女의 共用襚衣
Ⅴ.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Ⅰ. 緖 論

우리 先人들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現世에서와 같은 生活을 來世에서 한다는 繼世思想을 믿어왔기 때문에 死者를 극진하게 厚葬하여 死者에 대한 尊敬과 推仰을 表示하였으며, 家族에 대한 共同體的 觀念을 濃厚하게 지니고 있어서 祖上에 대한 崇拜가 두터웠기 때문에[1] 民族의 生死觀, 來世觀, 靈魂觀을 나타내는 儀式인 喪禮를 중히 여겨왔다.[2)·3)·4)·5)·6)·7)·8)·9)]

이 죽음에 있어 尸身에 새로 갈아입히는 衣服, 死者의 平常服, 生存時의 社會的 地位, 身分, 年齡, 性別 등이 표시되는 禮服으로서의 襚衣는[10] 死者에 대한 生者의 哀痛의 情과 恭敬과 愼重하고 정성스런 마음을 잘 반영한 옷이라고 볼 수 있다.[11)·12)·13)]

이러한 襚衣에 대하여 文獻的인 內容과는 다른 多樣한 實態를 보이고 있는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의 體系化의 一環으로, 이미 發表된 論文[14]에 이어서, 本 硏究에서는 現行 襚衣의 準備와 保管

1) 李鍾恒,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關한 硏究", 論文集(人文科學篇), 第9輯, (國民大, 197.) p.132~134.
2) 李必英, "韓國 古代의 葬禮儀式 硏究", 論文集(人文科學篇), 第17輯, (韓南大, 1987) p.257.
3)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p.193.
4) 朴桂弘, 韓國民俗學槪論, 螢雪出版社, 1989. p.147.
5) 劉寬順, "우리나라 襚衣에 關한 硏究－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 大學院, 1990. p.6.
6) 何聯奎, 中國禮俗硏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p.85.
7) 李鍾恒, 前揭書, pp.123~124.
8) 石宙善, "李朝宮中儀式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關한 硏究", 同大論叢, 第5輯, (同德女大, 1975) p.8.
9) 高福男, "죽음－來世的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淑大新報, 1981. 5. 28.
10)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pp.156~157.
11) 劉寬順, "江原道 地方의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Ⅰ)" 論文集, 第6輯, 東宇專門大學, 1994. p.182.
12) 張基權, "禮의 精神과 活用", 中國學報, 第10輯, 韓國中國學會, 1969. pp.57~58.
13) 劉寬順, "韓國 襚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p.170.

法, 치수 및 形態에 관한 內容을 考察하고, 실측치를 중심으로 現行 襚衣의 品目별 치수를 提案하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本人의 現地調査의 調査時期는 1989년 6월부터 1994년 9월까지의 期間이며, 調査對象者들의 年齡記入은 面談한 해를 基準으로 하였다. 또한 襚衣의 실측에 있어서, 所藏者들이 襚衣의 공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측치와 사진으로 實物資料를 比較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Ⅱ. 襚衣의 準備

요즈음은 거의가 3日葬이므로 襚衣準備時間이 충분하지 못하여 襚衣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지않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보는 肯定的 來世觀 때문이기도 하고[15], 襚衣를 지었다는 말이 어른들 귀에 들리면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襚衣 所藏者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襚衣를 미리 準備해 두는 것이 예의이며, 常禮라고 한다.[16]

襚衣準備는 回甲이 지난 후 年歲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날을 정해서 하는데,[17)·18)·19)·20)·21)·22)·23)] 주로 閏年이나 閏年의 閏月, 閏年의 生日달이나 청명일에 하는 것이 좋고,[24)·25)·26)·27)·28)·29)·30)·31)·32)]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날을 받아서 한다.[33)] 이렇게 閏年에 襚衣를 準備하는 이유는 閏月이 空月이며[34)·35)·36)·37)] 남의 달, 남는 달, 덤 달, 여벌 달이고,[38)·39)·40)] 손이 없고 탈이 없고[41)·42)] 閑

14) 劉寬順,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Ⅰ)", 服飾, 第21號, 韓國服飾學會, 1993, pp.49~59.
15)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硏究, 一志社, 1988, p.313.
16) 이명길(남), 68세, 경남 진주시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17) 韓東龜 編著, 韓國の冠婚葬祭, 國書刊行會, 昭和 48, p.291.
18) 김부남(여), 68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거주, 1994. 9. 20. 본인과 면담.
19) 김명수(여), 43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거주, 1994. 9. 21. 본인과 면담.
20) 김양녀(여), 70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거주, 1994. 9. 10. 본인과 면담.
21) 박정희(여), 55세, 전남 순천시 중앙동 거주, 1990. 1. 15. 본인과 면담.
22) 임구자(여), 49세,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거주, 1989. 6. 30. 본인과 면담.
23) 김시우(남), 65세, 경북 안동군 거주, 1990. 2. 19. 본인과 면담.
24) 洪錫謨 撰, 東國歲時記, 閏月條 參照,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朝鮮印刷(株), 昭和 19, p.809. 에서 재인용.
25) 石宙善, 우리나라 옷, 광문출판사, 1967, p.109.
26) 華川文化院, 華川郡誌, 1988, p.317.
27) 이하영(남), 56세, 전북 전주시 풍남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28) 최동식(남), 81세, 전남 승주군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29) 최복녀(여), 77세, 전남 승주군 상담면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30) 이태윤(남) 69세, 전북 전주시 금암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31) 정복남(여), 86세,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거주, 1994. 9. 15. 본인과 면담.
32) 김광덕(남), 55세,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궁리 거주, 1994. 9. 3. 본인과 면담.
33) 김철희(여), 48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34) 박필술(여), 74세,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 거주, 1990. 2. 19. 본인과 면담.
35) 이춘영(남), 81세, 전남 승주군 상담면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36) 최명순(여), 53세,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거주, 1991. 9. 5. 본인과 면담.
37) 김명자(여), 41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거주, 1994. 9. 20. 본인과 면담.
38) 秦聖麒, "윤달" 韓國民俗大觀, 第4卷, (高麗大 民族文化硏究所, 1982) p.280.
39) 김형인(남), 49세,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거주, 1994. 9. 6. 본인과 면담.
40) 최정자(여), 48세,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거주, 1994. 9. 16. 본인과 면담.
41) 註 31) 參照.
42) 우옥선(여), 60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리 거주, 1994. 9. 23. 본인과 면담.

月이며,[43] 미리 해놓으면 長壽한다는 믿음 때문이다.[44)·45)]

襚衣를 미리 準備하는 사람은 거의가 장의사에는 맡기지 않고 손수 製作하든지, 수의점에서 맞추어 準備를 해 둔다.[46)] 襚衣를 製作할 때는 長壽한 老人들이나 집안의 女子 直系 親戚 子孫들이 모여 앉아 바느질 하는데,[47)·48)·49)·50)] 價格을 받지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해 주며, 이 날은 춤추고 북치고 노래를 부르고, 떡이나 팥밥, 팥죽, 찰밥 등을 해서 나눠 먹는데,[51)·52)] 찰밥을 지어 먹는 것은 천당에 갈 때 대우의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53)·54)]

Ⅲ. 襚衣의 保管法

미리 準備된 襚衣를 잘 保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保管을 잘못하면 襚衣의 옷감이 상하고 자손된 道理를 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襚衣를 保管할 때에는 濕氣가 없고 通風이 잘되는 곳에 保管하는데 오동나무는 좀이 슬지 않으므로 오동나무함에 襚衣를 保管하기도 하고,[55)·56)] 襚衣函에 넣어 장농 아래에 깊숙하게 넣어두거나[57)] 항아리 속에 넣기도 하고,[58)] 석작(대로 만든 상자)에 넣어 保管하거나 보자기에 싸서 궤에 넣어 保管하기도 한다.[59)]

保管時에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집어넣는 것으로서, 옷과 옷의 사이에 좀약이나 잎담배를 창호지에 싸서 넣어 保管하기도 하고,[60)·61)·62)·63)] 이외에도 고추,[64)·65)] 가루농약, 약쑥, 할미꽃 뿌리,[66)] 향을 넣거나, 냄새가 좋은 풀인 '궁궁이'의 잎을 넣기도 하고,[67)] 궁궁이와 냄새는 같은데 형태가 비슷한 '청궁'을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냄새가 좋지 않은 '소독나무'를 넣어 나쁜 냄새로 하여금 벌레가 오지 못하게하여 襚衣를 保管하기도 한다.[68)]

---

43) 北川左人, 朝鮮固有色辭典. (京城, ウサギ文庫, 昭和7) p.5.
44) 김춘옥(남), 71세, 강원도 홍천군 희망리 거주, 1991. 9. 21. 본인과 면담.
45) 장익진(남), 60세, 강원도 홍천군 태학리 거주, 1991. 9. 21. 본인과 면담.
46) 임 무(남), 47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47) 石宙善, 前揭書. p.143.
48) 이호집(남), 54세,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거주, 1991. 10. 5. 본인과 면담.
49) 이강립(남), 51세,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거주, 1991. 9. 5. 본인과 면담.
50) 임봉애(여), 48세,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거주, 1991. 10. 5. 본인과 면담.
51) 최월순(여), 57세,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거주, 1992. 9. 29. 본인과 면담.
52) 주서봉(여), 65세,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거주, 1991. 9. 26. 본인과 면담.
53) 양천허씨(여), 94세, 강원도 강릉시 교동 거주, 1989. 7. 2. 본인과 면담.
54) 전정남(여), 75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거주, 1989. 7. 21. 본인과 면담.
55) 김명수(남), 71세,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거주, 1990. 2. 12. 본인과 면담.
56) 강두상(남), 71세,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57) 이용진(남), 64세, 강원도 양구군 남면 야촌리 거주, 1991. 9. 11. 본인과 면담.
58) 이종화(여), 87세,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거주, 1992. 9. 24. 본인과 면담.
59) 註 36) 參照.
60) 박란규(여), 59세, 서울 동작구 상도4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61) 김철규(남), 70세, 충북 청주시 모충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62) 권만연(여), 64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63) 조성임(여), 64세, 충북 청주시 수의동 거주, 1990. 2. 11. 본인과 면담.
64) 하영복(남), 71세, 경남 진양군 수곡면 거주, 1990. 1. 17. 본인과 면담.
65) 최난이(여), 88세, 전남 순천시 남정동 거주, 1990. 1. 16. 본인과 면담.
66) 정정완(여), 78세, 서울 성북구 동서문동 거주, 1990. 7. 14. 본인과 면담.
67) 신금순(여), 57세, 경북 안동시 안흥동 거주, 1990. 1. 18. 본인과 면담.
68) 김효중(여), 63세, 경북 안동군 거주, 1990. 2. 19. 본인과 면담.

이렇게 保管해 온 襚衣는 1년에 한두번씩 거풍을 하는데, 거풍의 時期는 濕度가 높은 장마 시기에는 곰팡이나 좀이 슬기 쉽기 때문에, 여름 장마가 지나고 음력 7~8월경에 날씨가 맑고 볕이 좋은 날, 바람이나 습기가 없는 날에 자리를 깔고 널어서 거풍을 하여 눅눅함을 제거한 다음 거두어 다시 保管한다.[69)·70)] 특히 음력 칠월 칠석날에 거풍을 하는 것이 더욱 좋은데, 이것은 尸身이 입고 가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만일 그 날에 비가 오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고,[71)] 삼베로 襚衣를 製作하면 좀이 슬지 않으므로 거풍이 필요없다고도 한다.[72)]

襚衣函을 정리할 때는 襚衣를 차곡차곡 개어서 집어 넣되, 먼저 입히는 品目은 위에 놓고 나중에 입히는 品目은 밑에 놓아서 順序가 바뀌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本人이 간수하는 것보다는 子孫들이 정성껏 保管하는 것이 자식된 道理라고 하였다.[73)]

Ⅳ. 襚衣의 치수와 形態

襚衣의 치수는 本人의 體軀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長身이라든지 肥大하다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옷감의 폭의 넓고 좁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특히 여유를 많이 두어야만 하는 옷이기 때문에[74)·75)] 그 여유분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따라서도 치수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襚衣의 形態도 幎目, 握手, 斂布 등은 최근에 와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襚衣 製作時 전부 삼베로 하거나, 명주로 하거나 또는 겉은 명주 안은 삼베로 하는데, 명주와 삼베는 폭이 같으므로 필요량을 같아 취급해도 된다고 할 수 있으며, 1자 50cm로 해서 1필이 40자인 경우와 20자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禮葬에서는 男子는 總 200자에서 390자 정도, 女子는 總 200자에서 330자 정도가 필요하며, 俗葬에서는 男子는 總 100자에서 180자 정도, 女子는 總 150자 정도가 필요하다.[76)·77)·78)·79)]

이와 같이 襚衣의 치수와 形態는 種類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男子와 女子, 男·女의 共用品目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實物은 襚衣를 직접 공개한 일곱 사람의 襚衣와 葬儀社에 所藏되어 있는 男子襚衣 上·下品, 女子襚衣 上·下品을 中心으로 하였고,[80)] 그 외의 서술은 調査內容을 근거로 하였다.

男子는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道袍를 중심으

---

69) 註 57) 參照.
70) 한옥희(여), 54세,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거주, 1991. 9. 5. 본인과 면담.
71) 안춘명(여), 61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거주, 1992. 9. 26. 본인과 면담.
72) 註 22) 參照.
73) 註 68) 參照.
74) 權桂淳, 우리옷 변천과 재봉. 修學社, 1983. pp.182~183.
75) 尹瑞石 博士 回甲紀念文集 刊行會, 韓國의 傳來生活. 修學社, 1983. p.182.
76) 정순봉(여), 71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거주, 1990. 2. 10. 본인과 면담.
77) 註 70) 參照.
78) 註 51) 參照.
79) 註 39) 參照.
80) 치수와 形態調査에서의 襚衣所藏者의 姓名(敬稱은 생략함)을 밝히면 다음과 같으며, 이후로 〈表 1〉~〈表 9〉의 품목란에 所藏者의 姓名대신 아래에 제시한 所藏者 앞의 記號를 붙 이고자 함.
가. 尹 寓 나. 정한진 다. 金日山 라. 葬儀社 所藏 男子 襚衣 上品 마. 葬儀社 所藏 男子 襚衣 下品 바. 柳喜卿 사. 양천 허씨 아. 정화자 자. 이경옥 차. 葬儀社 所藏 女子 襚衣 上品 카. 葬儀社 所藏 女子 襚衣 下品
· 가~마는 男子의 襚衣이고, 바~카는 女子의 襚衣임.
· 葬儀社 所藏 襚衣의 上品과 下品의 區分 基準은 衣次의 差異, 襚衣 種類의 多少, 價格 등에 根據한 것임.

로, 女子는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圓衫을 중심으로 표준치수를 기준으로하여,[81] 기준치수와 실측치수와의 차이를 산출하여 表로 提示하고 比較하였으며, 男·女의 共用品目은 幎目, 握手, 小斂衾, 大斂衾, 天衾, 地衾, 베개, 斂布 등을 中心으로 比較하고자 한다.

또한 키가 작은 사람은 관계가 없으나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큰 사람은 치수가 더해져야 하는데 치수에 있어서도 숫자 개념이 달라서 婚事에는 結合과 관련이 되어 짝수를 쓰는데 비해서, 喪事에는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 홀수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82]

1. 男子의 襖衣

적삼의 치수는 저고리의 치수보다 조금 작게 하고 한삼을 단다.

저고리는 평상시의 것보다 크게 하는데,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준치수를 기준으로, 실측치에서 기준치를 뺀 差를 보면 길이 9cm정도, 화장 17cm정도, 뒷품 19cm 정도, 진동은 8cm 정도로 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보아 길이와 진동은 5cm 이상, 화장과 뒷품은 10cm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길이와 진동보다 화장과 뒷품의 크기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表 1〉 男子 저고리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저고리	길이			화장			뒷품			진동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가	60	69	9	75	91	16	51	66.8	15.8	25	33	8
나		64.6	4.6		91.9	16.9		70.4	19.4		31	6
다		62	2		80	5		65	14		28.4	3.4
라		60	0		81.7	6.7		57	6		26	1
마		61.4	1.4		76	1		58	7		28	3

* 위 表는 註 80)~81)에 의거하여 作成한 것임. 以後에 제시되는 〈表 2〉~〈表 9〉의 치수의 根據도 위와 同一함.

바지도 평소의 것보다 크게 하며 겉바지를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表2 〉에서와 같이 바지 길이 19cm 정도, 부리 14cm 정도, 허리둘레를 42cm 정도로 크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길이 10cm 이상, 부리 7~8cm 이상, 허리둘레를 20cm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허리둘레가 평상복보다 커서 입히기에 편하도록 製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루마기는 〈表 3〉에서와 같이 평균치로 보아 길이 10cm 정도, 화장 14cm정도, 뒷품 ·수구·진동은 적어도 5cm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부분보다도 화장의 길이를 평상시보다 더 길게하여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손 끝에서 접어서 팔 부분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1) 표준치수는 朴京子·林純暎의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96. pp.143~267에 提示되어 있는 각 品目의 참고치수 大·中·小의 치수 중에서 '中'의 치수를 基準으로 하였으며, 각 品目마다 중요한 부분의 치수를 중심으로 하여 比較하였음.

82) 註 16) 參照.

〈表 2〉 男子 바지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바지	바지길이			부리			허리둘레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가	100	118.6	18.6	23	30	7	100	142	42
나		114	14		29	6		120	20
다		102	2		26	3		108	8
라		107	7		37	14		122	22
마		117	17		30	7		120	20

〈表.3〉 男子 두루마기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두루마기	길이			화장			뒷품			수구			진동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가	125	151	26	77	99	22	58	65.2	7.2	20	27	7	27	35	8
나		152.6	27.6		98.9	21.9		71	13		28.4	8.4		32.6	5.6
다		114	−11		82.4	5.4		62	4		26.4	6.4		32	5
라		122	−3		84	7		61	3		18	−2		29.4	2.4

道袍는 調査對象의 數가 적지만, 調査結果에 의하면 〈表 4〉에서와 같이 길이 · 화장 · 수구 · 진동의 치수가 기준치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뒷품만이 15cm 정도로 큰데, 道袍는 보통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크기이므로 襖衣로도 입을만 하지만, 襖衣의 道袍는 평상시보다 커야 하는 것이 禮儀라고 생각한다.

〈表 4〉 道袍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도포	길이			화장			뒷품			수구			진동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나	130	135	5	98	98.5	0.5	45	62	17	25.5	33	7.5	32.5	32	−0.5
다		127	−3		92.5	−5.5		58	13		24	−1.5		35	2.5

2. 女子의 襖衣

적삼의 치수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저고리 치수보다 조금 작게 하며, 〈寫眞 1〉과 같이 소매 끝에 한삼을 단다.

저고리는 調査結果를 보면 〈表 5〉에서와 같이 모든 부분이 평상시의 치수보다 큰데, 길이 29cm 정도, 화장 15cm 정도, 뒷품 23cm 정도, 진동을 8.5cm 정도로 크게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보아 화장과 진동 5cm 이상, 뒷품 10cm 이

상 으로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男子 저고리와 비교해 볼 때, 男子 저고리의 길이는 허리길이가 보통이므로 襦衣에는 5cm 정도를 더하면 되지만, 女子 저고리의 길이는 보통 가슴까지의 길이이므로 襦衣에는 평균적으로 20cm 이상의 길이를 더하여 길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寫眞 1〉 赤衫(정화자藏)

〈表 5〉 女子 저고리의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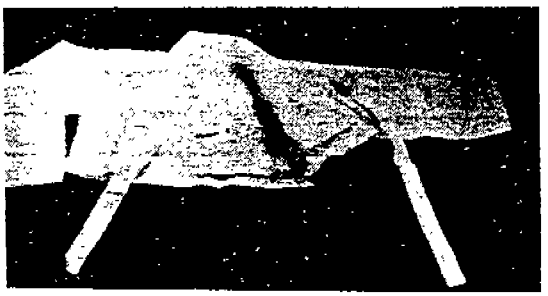
(단위 : cm)

치수 / 저고리	길 이			화 장			뒷 품			진 동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바	24	45	21	70	80	10	47	60	13	21.5	29	7.5
사[1]		35	11		69.4	−0.6		54.8	7.8		21.4	−0.1
[2]		35.6	11.6		72.6	2.6		54	7		22.4	0.9
아[1]		49.5	25.5		66	−4		66	19		24	2.5
[2]		44.5	20.5		75	5		58	11		25	3.5
자		43	19		83.4	13.4		56.2	9.2		24	2.5
차		44	20		84.8	14.8		70	23		28.4	6.9
카		53	29		79.5	9.5		61	14		30	8.5

* [1]속저고리, [2]겉저고리

형태적으로 속저고리에 한삼을 달은 경우도 있었고, 〈寫眞 2〉와 같이 속적삼과 저고리를 하나의 깃에 달아 입히기에 편하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바지도 평상시의 치수보다 크게 하는데, 〈表 6〉에서 보면, 바지길이를 21cm 정도로 길게하여 발이 보이지 않게 싸서 접어 무릎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바지길이와 부리를 5cm 정도, 허리둘레를 16cm 정도로 크게 하여 남자바지와 마찬가지로 허리둘레가 평상시의 옷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寫眞 2〉 赤古里(이경옥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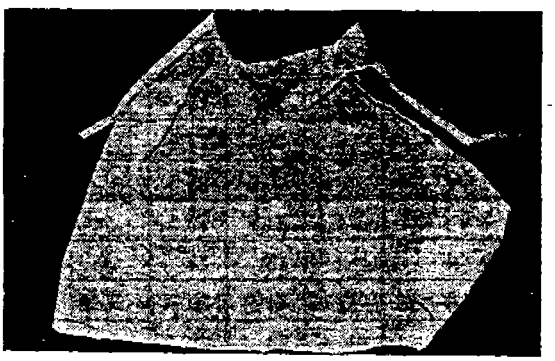
〈表 6〉女子 바지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바지	바 지 길 이			부 리			허 리 둘 레		
	기준 치수	실측 치수	치수차	기준 치수	실측 치수	치수차	기준 치수	실측 치수	치수차
바	90	111	21	22	26	4	89	92	3
사		92	2		24	2		95	6
아		100	10		23.5	1.5		90	1
자		85	−5		31	9		114	25
차		91	1		25	3		116	27
카		93	3		30	8		120	31

치마는 길이와 허리둘레를 비교하여 보면 〈表 7〉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35cm 정도 길어서 바지와 마찬가지로 발 밑에서 접어서 무릎길이까지 올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으나 조사결과의 수치는 길이와 허리둘레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길이를 평상시와 적어도 10cm 이상 길게 하여 발목을 덮을 수 있을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허리둘레는 치마와 허리가 평상시에도 넉넉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형태적으로 볼 때 입히기에 편하도록 치마말기 속에 바지허리를 넣어 달은 경우도 있었으며(〈寫眞 3〉 參照), 속치마의 길이를 겉치마보다 조금 짧게하여 속치마와 겉치마를 하나의 말기에 달은 경우도 있었다(〈寫眞 4〉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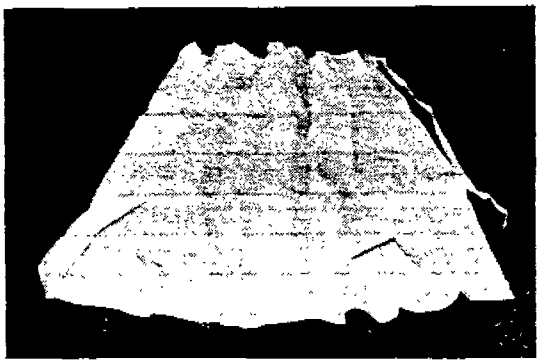


〈寫眞 3〉치마(葬儀社藏 下品)

〈表 7〉치마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치마	길 이			허 리 길 이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바	110	145	35	101	95	−6
사		99	−11		106.5	5.5
아		104	−6		102.5	1.5
자		104	−6		97.5	−3.5
차		109.4	−0.6		116	15
카		95	−15		110	9



〈寫眞 4〉 치마(葬儀社藏 上品)

두루마기는 조사결과 〈表 8〉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치수가 평상시보다 크다. 평균치로 보아 길이는 큰 차이는 없고, 화장·수구·진동은 5cm 이상, 뒷품은 14cm 정도 크게 하여 입히기에 편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평상복보다 뒷품에 차이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圓衫은 〈表 9〉에서 볼 수 있듯이 총길이와 앞길길이가 기준치보다 큰 경우도 있었고 작은 경우도 있었으며, 평균치로 볼 때 진동 5cm정도, 뒷품 9cm 정도, 화장은 7cm 이상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表 8〉 女子 두루마기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두루마기	길이			화장			뒷품			수구			진동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사	115	109	−6	71	69.7	−1.3	51	55	4	13	18	5	23.5	26	2.5
아		109	−6		76	5		70	19		22	9		31	7.5
차		120	5		83.6	12.6		69.2	18.2		20	7		32	8.5

〈表 9〉 圓衫의 치수

(단위 : cm)

치수 / 원삼	총길이			앞길길이			화장			진동			뒷품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기준치수	실측치수	치수차
바	129	170	41	109	124.6	15.6	104	149.8	45.8	25	33	8	56	62	6
사		120	−9		73	−36		84.2	−19.8		26.5	1.5		60.8	4.8
아		143	14		111.5	2.5		103.5	−0.5		30	5		70	14
자		112	−17		84	−25		106	2		32	7		65	9

現行 褓衣의 실측치를 기준으로하여 앞으로의 褓衣 製作에 필요한 치수를 提案하여 보면 〈表 10〉과 같다.

〈表 10〉 襖衣의 品目別 提案치수

品目 \ 部分 \ 性別		男子	女子
저고리	길이	5cm 이상	20cm 이상
	화장	10cm 이상	5cm 이상
	뒷품	10cm 이상	10cm 이상
	진동	5cm 이상	5cm 이상
바지	길이	10cm 이상	5cm 정도
	부리	7~8cm 이상	5cm 이상
	허리둘레	20cm 이상	16cm 이상
두루마기	길이	10cm 이상	5cm 정도
	화장	14cm 이상	5cm 이상
	뒷품	5cm 이상	14cm 정도
	수구	5cm 이상	5cm 이상
	진동	5cm 이상	5cm 이상
도포	뒷품	15cm 정도	-
	다른부분	평상시와 비슷함	-
치마	길이	-	10cm 이상
	허리둘레	-	평상시와 비슷함
원삼	화장	-	7cm 이상
	뒷품	-	9cm 정도
	진동	-	5cm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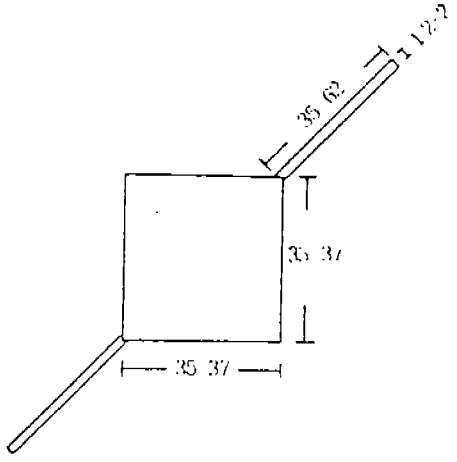
* 위 表의 襖衣品目의 提案치수는 평상시의 치수에 위의 表에 提示한 치수를 더한다.

3. 男·女의 共用襖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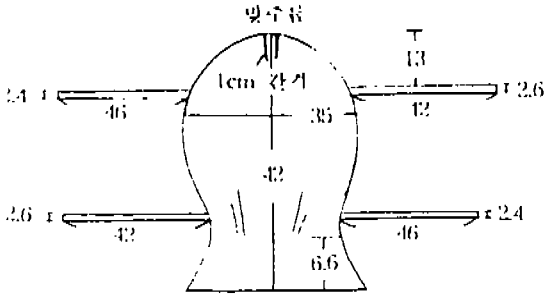
(1) 幅 目

幅目의 치수와 형태는 〈圖 1-1〉~〈圖 1-4〉, 〈寫眞 5-1〉~〈寫眞 5-4〉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25~42cm 정도로 다양하고, 폭은 22.5~37cm 정도로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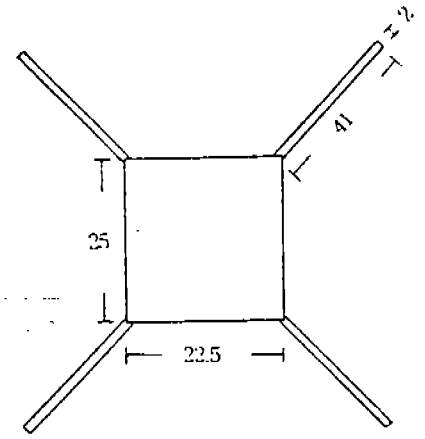
끈의 수가 각기 다르고, 끈 길이와 폭도 다르며, 끈이 없는 경우(圖 1-4)도 있었다. 形態도 여러 가지로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또는 〈圖 1-2〉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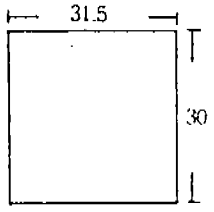
〈圖 1-1〉 幅目(정한진·金日山·정화자·이경옥藏, 葬儀社藏 男·女 上品의 模型圖)



〈圖 1-2〉幞目(尹宣, 柳喜卿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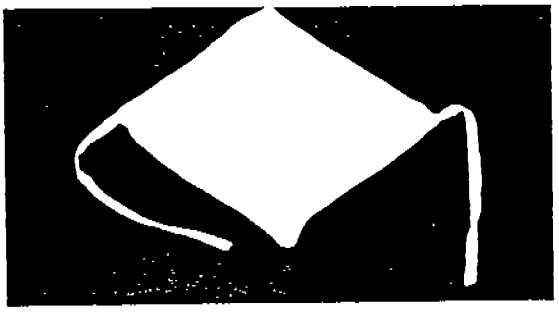


〈圖 1-3〉幞目(양천 許氏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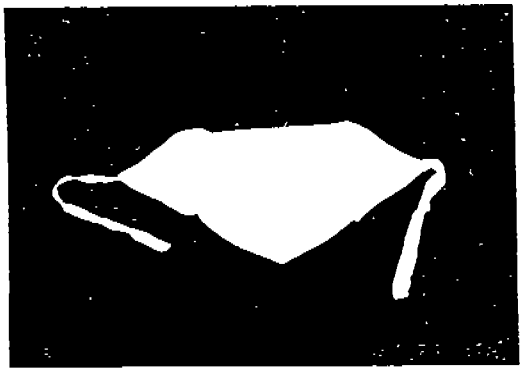


〈圖 1-4〉幞目(葬儀社藏 男·女 下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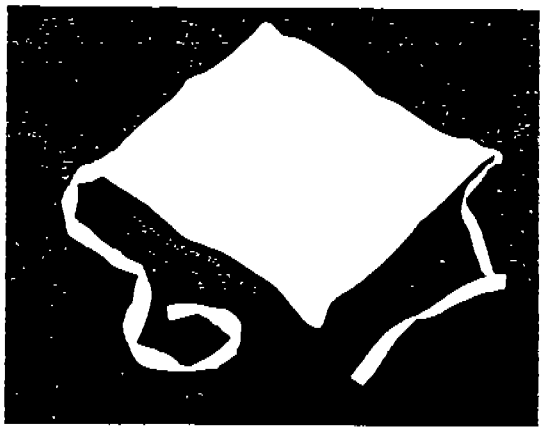
〈寫眞 5-1〉幞目(정한진·이경옥藏)



〈寫眞 5-2〉幞目(葬儀社藏 男子 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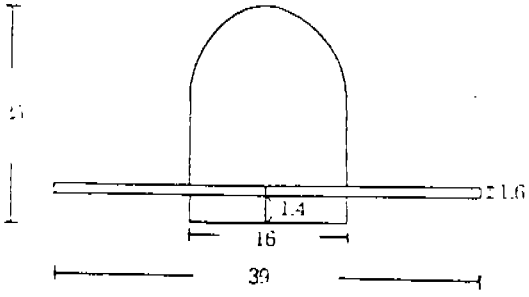
〈寫眞 5-3〉幞目(정화자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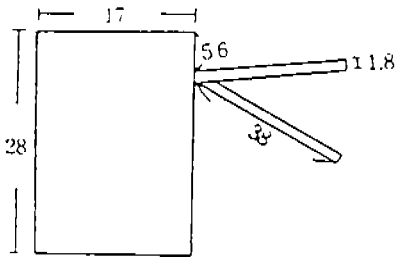
〈寫眞 5-4〉幞目(葬儀社藏 女子 上品)

(2) 握　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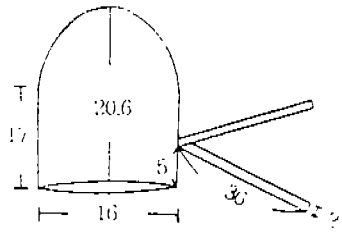
握手의 치수 및 形態를 보면 〈圖 2-1〉~〈圖 2-6〉, 〈寫眞 6-1〉~〈寫眞 6-5〉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13.5~28cm 정도로 다양하고 폭도 16~34cm 정도로 다양하다. 형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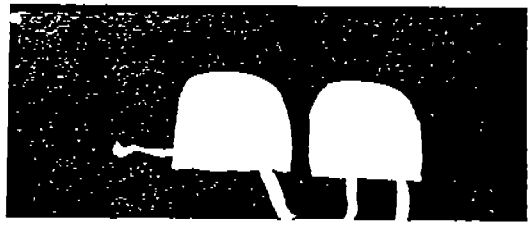
〈圖 2-1〉握手(葬儀社藏 男子 上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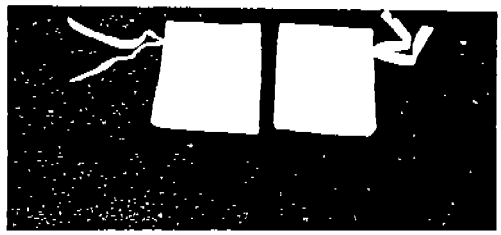
〈圖 2-2〉握手(葬儀社藏 男·女 下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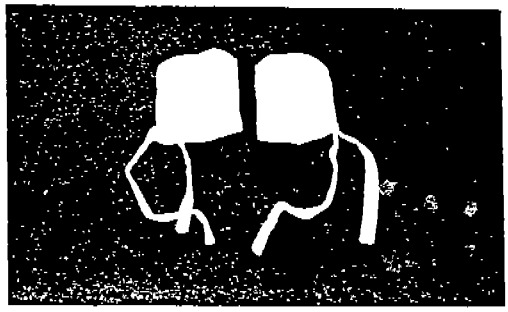
〈圖 2-3〉握手(정한진藏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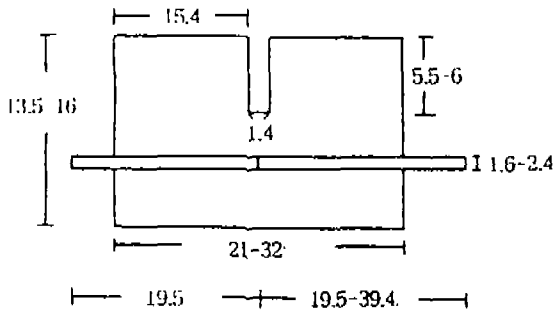
〈寫眞 6-1〉握手(葬儀社藏 男子 上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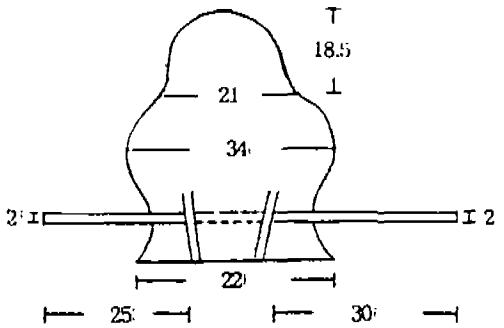
〈寫眞 6-2〉握手(葬儀社藏 男·女 下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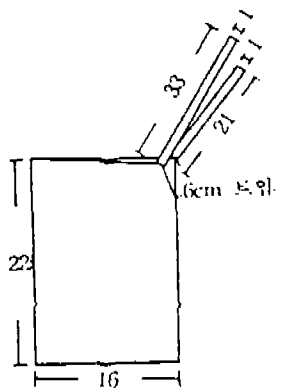
〈寫眞 6-3〉握手(정한진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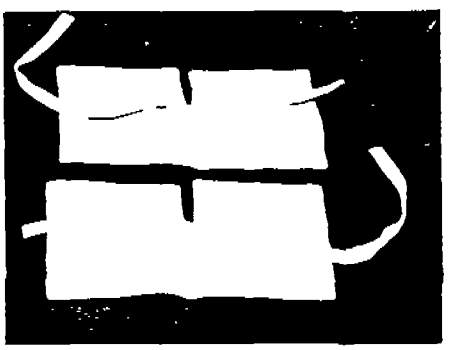
〈圖 2-4〉 握手(정화자藏, 葬儀社藏 女子 上品의 模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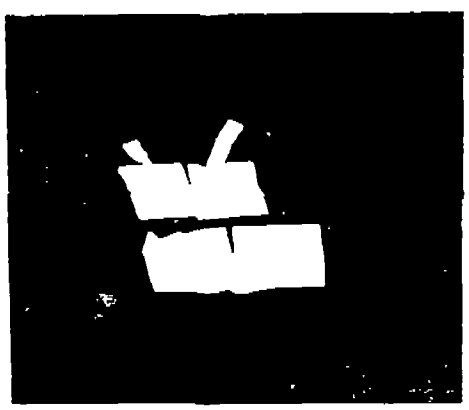
〈圖 2-5〉 握手(尹寓·柳喜卿藏의 模型圖)



〈圖 2-6〉 握手(김일산藏의 模型圖)



〈寫眞 6-4〉 握手(葬儀社藏 女子 上品)



〈寫眞 6-5〉 握手(정화자藏)

(3) 小斂衾, 大斂衾, 天衾, 地衾, 枕, 斂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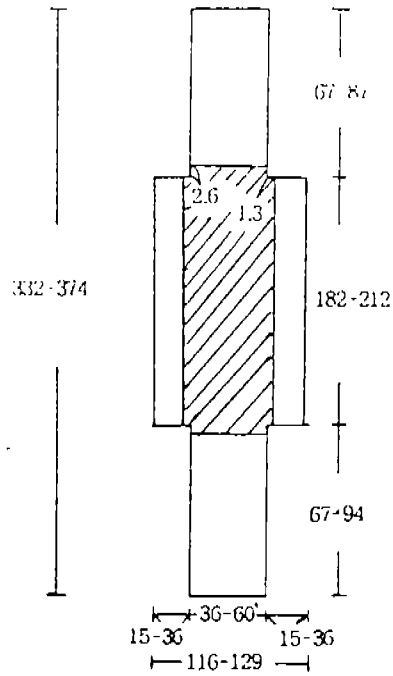
小斂衾의 길이는 148~251cm 정도이며, 폭은 100~118cm 정도이고, 大斂衾의 길이는 176~356cm, 폭은 112~135cm 정도의 크기이다.

天衾의 길이는 160~346cm, 폭은 30~75cm 정도이고, 地衾의 길이는 154~204cm, 폭은 31~58cm 정도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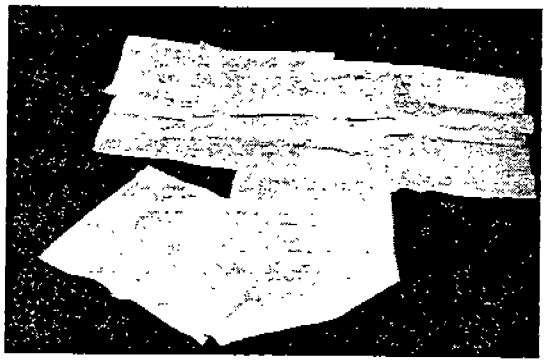
베개는 길이가 25~37cm, 폭은 15~21cm 정도이다.

小斂衾·大斂衾·天衾·地衾·베개의 形態는 모두 직사각형의 形態이다.

斂布는 길이가 332~374cm, 폭이 116~129cm 정도의 크기인데, 모두가 〈圖 3〉과 같이 한꺼번에 꿰매어서 十字 모양이다. 十字의 위, 아래, 좌우의 여러 가닥으로 갈라서 묶는 부분은 홑이고, 尸身이 놓이는 部分(斜線 部分)은 겹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寫眞 7〉과 같이 삼베의 세 폭을 나란히 놓아 가운데의 길이는 길게, 좌우의 길이는 짧게 하여 꿰맨 경우도 있었다.



〈圖 3〉 斂布(尹寓, 柳喜卿藏, 葬儀社藏 男·女 上品의 模型圖)



〈寫眞 7〉 斂布(葬儀社藏 女子 上品)

Ⅴ. 結 論

이상과 같이 襚衣의 準備, 保管法 및 現行 襚衣의 실측치를 중심으로 한 치수와 形態를 比較해 보았는데, 襚衣는 미리 準備해 두는 경우가 많았고, 襚衣의 保管時 좀약, 잎담배, 향을 넣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며, 특히 경북 안동 지방에서 보관시에 '궁궁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게 생각된다.

또한 저고리, 바지, 치마, 두루마기 등 거의 대부분의 品目이 평상복보다 품이 크고 길이도 길어서 尸身에 입히기도 편하고, 입힌 후에 尸身이 보이지 않도록 감쌀 수 있는 크기였다.

形態면에서 바지허리와 치마허리를 한 말기에 달아서 한꺼번에 입힐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속치마·겉치마를 한 말기에 달은 경우, 속적삼과 저고리를 하나의 깃에 달은 경우도 있었으며, 幎目과 握手는 다양한 形態를 나타내었다.

斂布는 과거의 小斂布, 大斂布는 縱과 橫이 각각이었으나, 現行에서는 小斂布와 大斂布를 하나로 하고, 形態도 縱과 橫의 布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十字 모양으로 꿰매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화되어 있었다.

앞으로 地域別 範圍를 擴大하여,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를 多角度로 深化시켜 考察하고, 面談者의 신체치수를 고려한 심층적인 비교분석과 葬儀社 所藏 襚衣의 폭넓은 조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의 傳統 襚衣 制度와 現行 襚衣 制度와의 各 要素別 比較, 考察은 다음의 硏究에서 論議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高福男, "죽음－來世的 永生의 根源 回歸思想". 論壇. 湖大新報. 1981. 5. 28.
- 權桂淳, 우리옷 변천과 재봉. 修學社, 1983.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1册. 全南編. 文化財管理局. 1968.
- _____, 上揭書. 2册. 全北篇. 1969.
- _____, 上揭書. 3册. 慶南篇. 1971.
- _____, 上揭書. 4册. 慶北篇. 1972.
- _____, 上揭書. 5册. 濟州篇. 1973.
- _____, 上揭書. 6册. 忠南篇. 1973.
- _____, 上揭書. 7册. 忠北篇. 1974.

- _____, 上揭書. 8冊. 江原篇. 1976.
- _____, 上揭書. 9冊. 京畿篇. 1977.
- _____, 上揭書. 10冊. 서울篇. 1978.
- _____, 上揭書. 11冊. 黃海·平北·平南篇. 1979.
- _____, 上揭書. 12冊. 咸北·咸南篇. 1980.
- _____, 上揭書. 17冊. 衣生活篇. 1986.
- _____, 上揭書. 18冊. 禮節篇. 1987.
- 朴京子·林純暎,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96.
- 朴桂弘, 韓國民俗學概論. 螢雪出版社, 1989.
- 石宙善, 우리나라 옷(제작의 이론과 실제). 광문출판사, 1967.
- 石宙善, "李組宮中 儀式節次에 따르는 服飾制度에 關한 硏究". 同大論叢. 第5輯. (同德女大, 1975)
- 成春姬, "殮襲考". 論文集. 第8輯. (關東大, 1980)
- 劉寬順, "우리나라 襚衣에 關한 硏究－朝鮮朝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90.
- 劉寬順, "韓國 襚衣의 文獻的 考察". 服飾. 第17號. 韓國服飾學會, 1991.
- 劉寬順,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 (Ⅰ)". 服飾. 第21號. 韓國服飾學會. 1993.
- 劉寬順, "江原道 地方의 現行 襚衣에 關한 硏究 (Ⅰ)". 論文集. 第6輯. (東宇專門 大學, 1994).
- 柳喜卿, 韓國服飾史 硏究. 梨花女大 出版部, 1983.
- 尹瑞石 博士 回甲紀念文集刊行會, 韓國의 傳來生活. 修學社, 1983.
- 李種恒, "우리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關한 硏究." 論文集(人文科學篇). 第9輯. (國民大, 1987).
- 李必英, "韓國古代의 葬禮意識 硏究." 論文集(人文科學篇). 第17輯. (韓南大, 1987).
- 張基槿, "禮의 精神과 活用". 中國學報. 第10輯. 韓國中國學會, 1969.
-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淑明女大 大學院, 1989).
-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 硏究. 一志社, 1988.
- 中央日報, "踏月葬," 噴水臺, 1979. 1. 8.
- 秦聖麒, "윤달". 韓國民俗大觀. 第4卷. (高麗大民族文化硏究所, 1982).
- 華川文化院, 華川郡誌. 1988.
- 會寧郡民會, 會寧郡誌. 1978.
- 何聯奎, 中國禮俗硏究. 臺灣, 中華書局, 中華民國 72.
- 今村炳, 朝鮮風俗集. 日本, 京城斯道館發賣, 大正4.
- 北川左入, 朝鮮固有色辭典. 日本, 京城ウサギ文庫, 昭和7.
-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朝鮮印刷(株), 昭和19.
- 韓東龜編, 韓國の冠婚葬祭. 日本, 國書刊行會, 昭和48.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hroud (Ⅱ)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current shroud.

People began preparing their shroud after their 60th birthday anniversary. To keep the prepared shroud unharmed mothballs, leaf tobacco and kungkungi were placed inside.

The size was larger than everyday clothes. The size of the men's shroud was 390 Ch'ok and that of the women's shroud was 330 Ch'ok in formal funeral ceremonies. But size woud be determined by the person's standard of living or economic situation. According to the proposed size of shroud illustrated in table 10 and the size was 5 to 30cm larger than everyday clothes.

The shape of the shroud was various that Ryomp'o represented by the cross and so on.